

단돈 천원으로 클래식에 빠지다

'천원으로 누리는 행복한 문화 축전'

21일 밤 광주시 동구 총장로 옛 미국문화원 뒷골목에 자리잡은 어린왕자 스튜디오에서 피아노 연주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흘러 나왔다. 사람들은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던 공간이 이날은 소박한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편하게 자리를 잡은 50여명의 관객들은 '청산에 살리라', '복 있는 사람들' 등 중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을 빼닮았었다.

이날 무대에 선 주인공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소속의 중창단 '루스 노비'와 지휘자 김사도씨, 지휘자 김씨의 음악 인생 이야기와 노래를 접목시킨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이하 천원의 행복)의 첫번째 무대였다.

매월 셋째주 월요일 열리는 '천원의 행복'은 다소 어렵게 느끼는 클래식 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관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주자 가까이에서 음악을 듣고, 악기에 대한 이야기, 곡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다. 그래서 일반 공연장처럼 딱딱하게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로 꾸려나갈 예정이다.

예술위원회는 공연 장소를 정하는 데 정성을 쏟았다. 정식 공연장을 대관 비용이 비싸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을 찾으려 애썼다. 예술의 거리와 종장로 등 시내 중심가에 판을 벌여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번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연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어린왕자 스튜디오는 무료로 공간을 내놓아 예술위원회의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

'천원의 행복' 무대에 서는 이들은 예술위원회 소속 연주자들이다. 올 봄 예비 사회적 예술기업으로 선정된 예술위원회는 지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 38명을 채용, 연주단체를 꾸렸다.

단원들 절반 이상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유학파들이다. 예술위원회는 38명으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 첫번째 무대가 21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어린왕자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빛고을 천원의 행복'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광주시민을 찾아간다.

亞공연예술위, 매월 셋째주 월요일

총장로 '어린왕자 스튜디오' 무대

관객과 호흡하는 '음악회' 꾸려

로 구성된 '아시아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큰 이름 아래 연주팀으로 여성챔버 심어즈 '루스노비', 협약양상을 '나인 챔버오케스트라'를 운영중이다.

지역에서 음악인들은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현재 광주, 목포 시향이나 학교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예술위원회 소속 연주자들은 '월급'을 받는 유일한 민간연주단체다. 매월 85만원의 월급과 4대보험을 보장

받는다.

예술위원회의 목표는 매월 1천원을 내는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주인의식이야말로 지역 문화 발전을 일구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이날 공연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색다른 경향'에 행복해 하는 표정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에 온 손선희(38)씨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본 적은 처음"이라며 "매달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예술위원회 정상연 상임이사는 "문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10월 19일 열리는 다음 연주회는 '여성'을 위한 테마로 진행되며 '나인챔버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도 역사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특강

대동문화 조상열 대표



특히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원교 이광사를 비롯해 조선시대와 소치 혜련등에 이르기까지 남도문화의 르네상스를 일구온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조 대표는 22일 국정원 광주지부에서 '남도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했다. 문의 062-461-1500. /김대성기자 bigkim@

동신여고 '소나무 아래 잠들다' 최우수 작품상

제20회 광주학생연극제

동신여고의 '소나무 아래 잠들다'가 20회 광주학생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지난 16~19일 문예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경연에서 동신여고는 최우수 연기대상(강희원), 최우수연기상(장은지) 등 모두 3개 부문을 수상했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

가 주최한 이번 경연에서 우수상은 전남여상의 '흑과 백이 만난다'이며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광주정보고의 '칠수와 만수', 광주설레시오여고의 '가출소녀 우주여행기'가 차지했다.

동신여고는 오는 11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청소년연극제에 광주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문의 062-523-7292.

후미진 한옥 다시 찾는 밭걸음



광주의 대표 근대 건축물인 이장우 가옥(시지정민속자료 1호)이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18~11월4일)를 통해 새로운 문화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날 규방디단에서는 최근 자작적 에세이 '애들 힘들면 연락해' 샐러 퍼퓸을 출간해 화제가 됐던 김수미씨가 참여해 20여명의 관람객들과 함께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이 곳에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은행수 예술 총감독(26일), 궁중 음식연구원 한복려 원장(10월10일), 디자이너 이상봉씨(10월11일) 등이

이장우가옥서 텔런트 김수미씨 시민과 규방디단

전시 공간인 남구 양립동 이장우가옥에서 텔런트 김수미씨를 초청해 '성격이 팔자를 만든다'를 주제로 규방디단(閨房茶談) 행사를 가졌다. 규방디단은 명사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한옥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디자인과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규방디단에서는 최근 자작적 에세이 '애들 힘들면 연락해' 샐러 퍼퓸을 출간해 화제가 됐던 김수미씨가 참여해 20여명의 관람객들과 함께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 조각가 고근호씨가 소화기와 소화전에 까치와 호랑이 형상의 조각품을 입혔고, 조각가 최은태씨는 수도, 비상벨을 부엉이 형태로 꾸며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2일 광주시 남구 양립동 이장우가옥에서 텔런트 김수미씨(왼쪽)가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규방디단' 행사를 갖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화폭에 물들이 '무등산 사랑'

광주MBC 창사 45주년 '청년선언전'

청년작가들의 '무등산 사랑'이 화폭을 물들였다. 광주MBC(사장 윤영관)은 창사 45주년과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 20주년을 맞아 23~30일까지 광주 D 갤러리에서 '무등산 청년선언전'을 갖는다.

지난 13~14일간 펼쳐진 '무등산 둘레 답사'에 강운, 윤의, 이구용, 이이남, 이매리, 황민옥씨 등 청년작가 20여명이 참가해 무등산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또 이들은 무등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난 13일 의재미술관에서 무등산과 남도미술을 주제로 워크숍도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 이이남씨는 무등산을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전시하고, 박태후씨는 여백의 미를 살려 넘치는 무등산의 산세를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 한원택(광주과기원 교수)씨는 광섬유를 소재로



서기문 작 '무등일월합정도'

만든 이색적인 영상작품을 출품했고, 손봉체씨는 입체 회화 시리즈를 전시한다.

한편 광주 MBC는 이번 전시에 이어 오는 2010년 1월에는 서울시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라이트에서 이들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 판매 수익금은 무등산 공유화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21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는 어디에서 볼까요? www.moviebox.co.kr

메가박스

구.립단약국사거리 ☎ 064-0600

M관	애자 (15세)	최고급관
2관	국가대표-완결판 (12세)	
3관	S러버 (18세)	
4관	프로포즈 (15세)	
5관	어글리 트루스 (18세)	
6관	해운대 (12세)	
7관	마이 시스터즈 키퍼 (12세) / 하이레이 (18세)	
8관	블랙 (전체)	
9관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 시 정상요금 부과



한도시립영화관 * 예매: 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재빌딩)

1관	프로포즈 (15세) / 마이시스터즈 키퍼 (12세)
2관	나인 (12세) / 윈 편 마지막 집 (18세)
3관	처음 본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15세)
4관	지.아이.조 (15세) / 애자 (15세)
5관	해운대 (12세)
6관	S러버 (18세)
7관	하이레이 (18세) / 국가대표 (12세)
8관	어글리 트루스 (18세)
9관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10관	국가대표 (12세)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범→(1번 or 2번)→0번



고래시장 고객감동 * www.hamciinema.co.kr / 1588-8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허미스포츠 ☎ 267-7777

1관	드림업 (12세) / 오펜-천사의 비밀 (18세)
2관	나인 (12세)
3관	처음 본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15세)
4관	국가대표 (12세)
5관	마이 시스터즈 키퍼 (12세)
6관	S러버 (18세)
7관	이태원 살인사건 (15세)
8관	애자 (15세)
9관	국가대표 (12세)
10관	해운대 (12세)

* 500여년 넘은 주차장 343(4층) * 365 매일 심야 * 051-620-OK 카페&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풀무장 251-5000